

첨단 악취관리시스템 추가 구축

익산시, 동산동·인화동 2곳에 악취 측정기 추가 설치... 축산악취 집중 감시·적극 대응

익산시가 첨단 악취관리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악취 추적·감시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 27일 동산동과 인화동 일대에 악취 포집이 가능한 무인 측정기 2대를 추가 설치해 익산시 전체 21개소에서 첨단 무인 감시시스템으로 24시간 악취를 감시한다.

이번에 설치한 측정 장비는 익산국가산업단지 악취와 김제시 용지면에서 유입되는 축산악취를 집중 감시한다. 악취를 실시간 측정해 익산시 악취관리시스템인 '익산악취24'로 전송한다.

시는 무인 측정기를 축산농가 7개소, 제1·2산업단지·동산동 일원 등 1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중 11개소는 복합악취 기준 초과 시 자동포집되는 시스템으로 악취를 감시한다. 또한 기상타워 2개소를 통해 바람방향 분석 및 악취 이동경로를



익산시가 첨단 악취관리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악취 추적·감시를 강화한다.

추정하여 신속하게 악취 발원지를 파

악하고 사업장에 악취 저감을 지시하는 등 악취 민원 해소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24시간 악취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악취민원 발생 건수가 전년대비 40% 감소했다. 그중 축산악취가 69%를 차지해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접수된 악취 민원에 대하여 악취 발생 특성과 기상조건에 따른 악취 영향을 분석하는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악취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 발생 시 악취상황실(063-831-8020)이나 익산악취24 앱(odoriisan.go.kr)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며 "첨단악취관리시스템을 통한 악취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도심 속 힐링 공간 조성 박차

생활밀착형 숲·스마트가든 등 실내정원 확대

익산시가 도심 속 실내 정원을 확대하며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자동화 관리 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치유·휴식·관광 효과 등에 도움을 주는 실내정원을 확대해 도심 생활 속에서 시민들에게 녹색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산림청 공모신청을 적극 활용해 국비 50%를 지원받아 생활밀착형 숲과 스마트가든 설치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실내정원 조성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생활밀착형 숲 2개소, 스마트가든 20개소를 조성해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내정원은 산림청 연구결과에 따르면 긴장과 우울감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데 효과가 있으며 실내정원에 식재되는 스킨답서스, 산호수, 멜라니 고무나무 등은 실내 정화에 공기 유해물질을 저감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근무자들과 방문객들이 실내정원을 활용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건강 증진 및 심신 안정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실내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도심 속에서 사계절 푸르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 운영

군산시, 내년 2월까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총력

군산시는 내년 2월까지 겨울철을 대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 한파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가중되는 시기로, 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상시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더불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발굴 기간'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희망복지지원단, 27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복지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발굴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 선정기준에 따른 공적 지원 대상으로 연계하고, 공적 선정 기준에는 부적합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의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시기일수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농가소득안정 '기본형 공익직불금' 381억원 지급

내달 1일부터 1만6200여명에 1만9146ha 지급

지급요건 완화로 작년 대비 1600여명·480ha 증가

익산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다음 달 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1만6202 농가, 1만9146ha로 지급금액은 381억원이다. 직불금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모현, 송학, 어양, 영등, 인화동은 농산유통과)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급대상 농지에서 2017~2019년도에 직불금을 정당한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요건이 삭제되면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돼 전년도보다 지급대상이 1600여명, 480ha가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이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

하, 농촌거주 기간, 농업의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 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공익직불금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방문 신청을 받았으며 6월부터 10월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에 대상자를 확정해 지급하게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구도심에 '치킨로드' 조성

28일~내달 9일, 창업 교육·컨설팅 진행

익산시가 닭을 테마로 창업을 유도해 구도심 상권에 치킨로드 조성에 나선다.

시는 지난 28일 청년시청에서 개최한 '구도심(중양동) 치킨로드' 조성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 교육'에 예비 외식 창업자, 닭요리 업종 전환 희망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했다.

치킨로드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하여 기획된 프로젝트다.

시는 중양동 젊음의거리부터 문화예술의거리 일원에 교육·컨설팅을 거쳐 특색있는 닭요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치킨로드 창업 교육은 총 8회 교육과정으로 개강식, 강의, 견학으로 이루어진다.

이날 개강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오임선 보건복지부 위원장 및 시의원, (주)하림 계열사 엔비이온 한원탁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신규백 익산근대문화연구소

장외 '호남 명동, 중양동의 영광과 과제'와 김소철 소상공인과정의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구도심 치킨로드 조성계획' 강의를 진행했다.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교육에서는 성공창업전략연구소 박종현 소장(외식창업 전문가), 청운대학교 진익준 교수(외식경영 전문가), (주)하림 유영삼 기획조정실장(식품산업 전문가), 엔비이온 박민호 셰프(닭 요리 전문가), 치킨집 꽃파 박순신 대표(치킨 창업 전문가) 등 전문가들이 이론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 속 노하우를 전수한다.

또한 교육생들은 음식특화거리인 예산·삼교시장과 신선한 닭만을 취급하는 철학이 담겨있는 하림산업 방사공장으로 선진지 견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특산물인 닭을 활용한 새로운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중양동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금강도서관

'소망 트리 행사' 진행

군산시 금강도서관은 연말연시를 맞아 새해 소망 및 다짐과 각오를 담아 작성한 엽서를 트리에 직접 달아 함께 공유하는 '소망 트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오는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금강도서관 1층 유아동 자료실에서 진행되는 소망 트리 행사는 마려해 놓은 엽서에 내용을 담아 트리에 소망을 장식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도서관(454-56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새만금 사랑 빠지다'

영상공모전 수상작 선정

군산시는 28일 '군산새만금 사랑 빠지다' 영상공모전 수상작 총 12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일반영상 부문에서는 '군산새만금! 새길을 열다'가 대상, '미지의 세계, 새만금으로의 초대', '군산새만금에게'가 각각 최우수 수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우수상 3편을 추가로 뽑았다.

또한, 숏폼 부문에서는 '내가 먼저 새만금에서'가 대상, '내가 군산새만금에 빠진 이유', '새만금 아미도 노을의 아름다움'이 각각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 외 우수상 3편이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는 시 홈페이지 시청소식 및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은 군산시장상장과 함께, 일반영상 부문은 대상 4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숏폼 부문은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70만원, 우수상 4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